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66.09	↓ 코스닥	839.61
	(+5.17)		(-13.27)
↓ 금리 (미국 9년)	3.035	↑ 환율 (원/달러)	1384.65
	(-0.041)		(+1.15)

metro® 경제

하이브리드 인기
상반기 수출액
370억 달러 '사상 최고'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SK온 운명의날... 100조원대 공룡 에너지社 탄생 임박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그룹의 리밸런싱(재조정)이 시작됐다. 첫 관문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다. SK는 이사회를 앞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자산규모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이 탄생한다. 두 회사간 합병 여부에 따라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오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합병 추진을 검토한다. 이 결과에 따라 1지주사 SK도 18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K이노-SK E&S 합병 막판조율 증권가, 양사 합병 가능성에 무게 SK온, 적자·재무구조 개선 기대

합병 비율 따른 주주 반발 걸림돌 수평통합 방식 CIC체제 구축 의견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비롯해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등을 자회사로 두고 배터리, 석유 탐사, 정유, 석유 화학 제품 생산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보유 자산은 86조원에 이른다.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재생에너지 등이 주력으로, 자산 규모 19조원의 비상장사다.

증권사 측에서는 양사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진의 늪에 빠진 SK온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SK E&S의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

지원을 기반으로 SK온이 하반기 흑자 전환과 IPO 성공길을 열어주겠다는 설명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SK온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온은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가 둔화된 상황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SK E&S는 지난해 매출 11조1700억원, 영업이익 1조3300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매출 77조2900억원, 1조9000억원)보다 수익성 면에서 우월하다. 합병 시 SK E&S의 자금력으로 SK온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SK온은 지난해만 58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주주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 비율에 따라 각각 소액 주주들과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이 주가를 웃도는 가격에 형성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비상장사 SK E&S의 수익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장사 SK이노베이션과 합병 비율이 2대 1로 결정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재무적 안정성 향상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 가능성, SK그룹의 신설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 불식 등을 예로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사는 주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평 통합 방식의 사내독립기업(CIC)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수평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구조로 합병하고, 양사는 기존 조직과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귀에 거즈 붙이고 전당대회 참석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3연속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이 귀에 거즈를 붙인 채 15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스버그포럼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참석해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이야기하고 있다. AP/뉴시스

韓 올해 성장률 2.5%로 상향... 美·日은 하향

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美 대선결과 따라 성장 제약"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3.2% 예상을 유지했다. 또 오는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종전(올해 4월 발표)의 2.3%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및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4.6%에서 0.4%p 올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망치는 2.6%로, 기존의 2.7%에서 0.1%p 낮춰 잡았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일본의 경우 0.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예상한 0.9%에서 0.2%p 내렸다. 올해 1분기 일부 자동차업체의 출하 정지 등 생산 차질을 반영한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콜마, 북미공략 위해 핵심인재 전면 배치

美법인 총괄에 허용철 사장 선임 등 생산·영업 등 각 분야 전문가 배치

한국콜마가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C레벨'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미국에 제2공장 건립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한 현지화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아마존과의 협력도 본격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콜마는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산, 영업, 연구개발(R&D) 각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북미법인 콜라보라토리와 미국법인 콜마유에스에이의 신임 총괄대표이사(CEO)로 허용철 사장이 선임됐다.

허용철 사장은 한국콜마의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 총괄을 거치며 전문 경험을 쌓은 글로벌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계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북

경콜마와 무석콜마 동사장을 역임하는 등 허용철 사장은 콜마 중국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영업 총괄(GCCO)에는 필립 워너리를 임명했다.

필립 워너리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인 인터코스사의 북미법인 CEO, 에스티로더 영국 대표 및 캐나다 대표 등을 지낸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다. 브랜드 기업부터 ODM 기업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대통령실 "늘봄학교 2963곳 운영... 2학기 전국 확대 목표 달성할듯" /사진 뉴시스
- ▲ 대통령실,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보도에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 ▲ '25만원 특별초치법' 공청회...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놓고 충돌
- ▲ 외교부 "美 어떤 정당이든 한미동맹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



- ▲ 조규홍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부담 ↑... 업무 완화 방안 추진" /사진 뉴시스
- ▲ 국회 법사위, 이원석·정진석尹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사상최고'

총 370억 달러, 전년비 3.8% ↑

산업부, 북미 수출호조 지속에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영향

내수판매는 11% 줄어 80만대 친환경차 30만대로 '최대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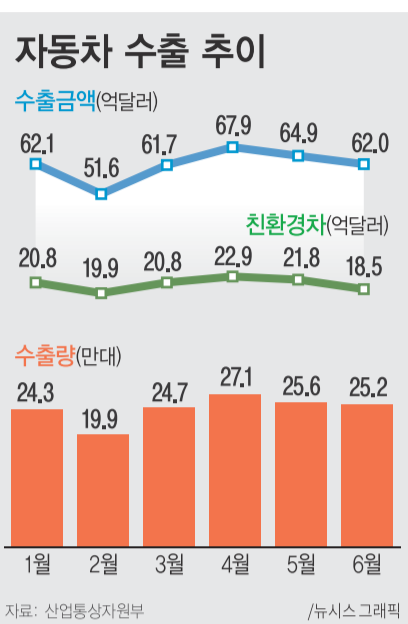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영향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기차대기수요가 감소하고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도 자동차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21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 급등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



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 감소율은 독일 -15.9%, 핀란드 -29.0%, 스웨덴 -20.7%, 노르웨이 -10.5%였다.

6월 수출 실적은 조업일이 1년 전보다 1.5일 감소했음에도 작년 수준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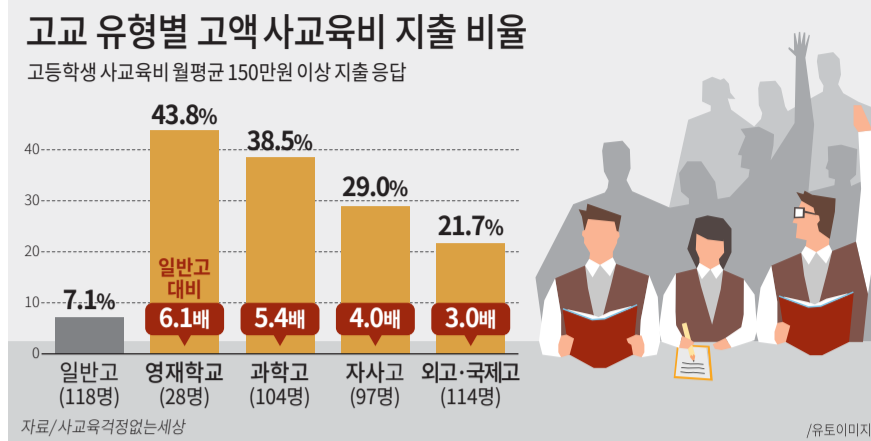
6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중심 수출 기조가 지속됐고,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215만대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으나,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월평균 35만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는 1년전보다 11% 감소한 80만대다. 전년도 역기저 효과 등에 따라 감소세지만 친환경차는 30만대가 판매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사고 학비 평균 1300만원

일반고 71만원의 19배 달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지난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연 1300만원을 넘으며, 일반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고(71만3000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업료·입학금·등록금 등 부모 부담

광역 외고 850만원, 국제고 638만원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여전히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3000원으로 일반고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을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 배와 1.2 배에 해당한다.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의 경우, 연 3657만1000원에 달했다. 이는 무려 일반고의 51.3배나 되는 금액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에 해당한다. 이어 한 국제고의 경우 연 학비가 2631만7000원, 한 외고는 2126만3000원을 기록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총 71개교 중에서 2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23개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8개교, 광역단위 자사고 17개교, 외고 13개교, 국제고 1개교였다.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늘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본창 사격세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수치는 일반고 대비 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일반고의 50 배 이상, 중위소득의 6.8배나 되는 학부모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생은 사교육비 지출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높았다.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 학생 비율은 7.1%에 그치며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 ihj@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철도 관광상품 개발... 인구 급감지역 살린다

농식품부·유관기관·지자체 맞손 내달부터 자유여행·패키지 판매

인구 급감 지역을 방문하는 기차여행 등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23개 지자체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지자체는 강원 5곳, 충청 5곳, 경북의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등 4곳, 충남의 공주, 서천 등 2곳, 전북의 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 등 5곳, 전남의 보성, 장성, 함평 등 3곳, 경북의 청도, 영천, 영주 등 3곳, 경남의 밀양 1곳이다.

이날 협약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

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이른바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을 선보인다.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 및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1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우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그 다음 달에 철도우임 40% 할인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또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마련한다.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할인을 최대 30%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SK온, 전기차 물량증가 전제 흑자 기대"

» 1면 'SK온 구출작전...'서 계속

CIC는 한 회사 내에서 특정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에 별도의 기업체를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SK E&S는 기존의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의 사업을 변화 없이 추진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은 SK E&S로부터 현금을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제대로 된 사정 청구도 없이 합병 대상이 된 SK E&S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만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당한 보상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합병 이후에도 SK온에 자금수혈이 선행됨에 따라 줄어드는 성과급과 대규모 조직개

편 등으로 불안정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직원들의 항의가 많은 상황이다.

SK온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합병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SK온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좋은 SK E&S와 합병이 추진된다면 편당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K온 관계자는 "많은 물량을 생산해 잘 팔아야 하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으로 인해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당장의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며 "하반기에 전기차 물량이 증가한다는 전제를 고려할 때 연말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그룹 리밸런싱

수평적 통합 'CIC' 체제 유력... 시장 변화 발 맞춘다

(사내독립기업)



700여개 계열사 열기설기
부실 발생 등 건전성 적신호

사업 재조정 필요성 커져
HBM 등 AI 분야 집중 투자

SK그룹이 사업 전반의 재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지난 2018년부터 공격적으로 진행한 투자 인수합병으로 지난해 기준 700여 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 속에서 자회사 부실로 인한 재무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투자를 위한 재조정 필요성이 커졌다.

16일 <메트로경제> 경제 취재에 따

르면 SK그룹이 올해 계열사 정리 작업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대비 연결 자회사 수가 18개가 감소한 698개를 기록했다. 매각된 자회사 수는 17개, 흡수합병되며 몸집을 줄인 자회사는 11개, 청산된 자회사는 1개이며, 신규 설립된 자회사 수는 11개다.

SK의 포트폴리오 재편은 시장 유동성 축소와 함께 주요 핵심 사업 시장 급변으로 분석된다.

SK는 지주사 SK를 중심으로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SK디스커버리 4개 중간 지주사와 중간 지주사적인 SK네트웍스로 이뤄진 구조다.

SK는 2015년 SK㈜ 출범 후 사업영역을 ▲첨단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4개 분야로 크게 나누고 2018년부터 각 분야에서 제각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벌였다. 2018년 260개였던 자회사는 2019년 288개로 10%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25개, 2021년 454개, 2022년 572개, 2023년 716개까지 늘었다. 5년간 매년 전년 대비 25%씩 자회사가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투자와 인수합병이 낳은 부작용이다. 새롭게 개척한 신시장의 성격상 상황이 예측불가능하게 급변하면서 일부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졌고 모회사의 자본 창출력을 넘는 자본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 이어졌다. 이에 SK는 이번 하반기 이사회 중 대대적인 사업 재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계열사 간 인수합병 및 지분매각과 신규 투자 계획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힌 자회사 부실 문제가 바로 SK온 문제다.

오는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각 이사회에서 합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두 이사회 결과에 따라 SK㈜도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SK(株)는 SK E&S의 지분 90%를 갖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지분은 36.22% 보유 중이다. 이들 기업은 SK이노베이션 아래 SK E&S를 두는 수직 통합이 아닌 수평 통합 방식의 사내 독립기업(CIC)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진다.

SK는 이번 사업 재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주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SK는 지난달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중 80%에 달하는 82조 원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SK그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재 지난 1분기 유동비율은 100.56%에 달해 안정성 판단 기준치 100%에 간신히 머무는 수준이다. 16일 현재까지 다른 주요 계열사들의 임시 이사회 개최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늦어도 하반기까지 사업 재조정을 위한 임시 이사회가 계속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계속 될 SK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향후 5년간 청사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재원 마련과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서라도 내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최태원 "생명과학·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SK그룹 회장)

SNS 통해 美 순방 소회 남겨
"차세대 의약품 개발 등 열정 공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6일 "SK는 혁신의 최전선에 있다"며 "생명과학부터 인공지능(AI)까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미국 전역을 순방하며 SK의 현지 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며 소회를 남겼다.

그는 "뉴저지 파라무스에서는 SK라이프사이언스의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혁신적인 차세대 의약품을 개발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조지아주 코빙턴에 있는 SKC 계열사 애플리케이션도 둘러봤다"며 "애플리케이션이 생산할 유리 기판은 칩 제조의 판도를 바꾸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미국 출장길에 올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회동한 뒤 SK바이오팜 등 SK그룹 계열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 결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빅테크들과 생명과학, AI 등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구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SNS 캡처

빛 못 갖는 개인사업자 급증... 은행 연체율 0.5%대 진입

금감원 5월말 기준 0.51% 집계
신규 연체 2.7조... 전월비 1000억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불황으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0.5%대로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0.48%)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직전해 같은 기간(0.40%)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신규 연체는 2조7000억원 발생해 전월(2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했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덕에 0.43%로 떨어졌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0.5%대로 상승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0.54%) 대비 0.04%p 상승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5%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0.11%) 대비 0.06%p 내렸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2%)은 전월(0.66%) 대비 0.06%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중소기업 연체율 보다 컸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p, 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했다. 이는 2014년

11월(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75%로 전월 대비 0.05%p,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p, 직전해 같은 기간(0.37%)과 비교해 0.05%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장기평균(2010~2019년 평균, 0.78%)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손실 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고 은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내년 美 2공장 완공... 유럽 등 신시장 공략

>> 1면 '한국콜마, 북미 공략...'서 계속

한국콜마는 R&D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북미법인 최고 연구개발 책임자(CSO)에 임명된 조지 리베라는 20년 넘는 경력의 연구개발 전문가다. 최근 콜마 유에스에이 법인장으로서 공정 및 기술에서 혁신을 주도했다.

한국과 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북미법인 연구개발(R&D) 센터장에는 박인기 상무가 올랐다. 박 센터장은 18년 차 연구전문가로, 콜마그룹의 글로벌 R&D 허브인 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핵심 기술을 현지 시장에 맞게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색·제형·향기 등 종합기술원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나선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인력 배치와 함께 한국콜마는 현재 미국 제2공장을 건립 중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북미법인 생산시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미를 포함해 중남미, 유럽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콜마는 아마존과도 협력한다. 오는 7월 아마존 프라이머리 데이, 10월 아마존 프라이머리 빅딜 데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주요 행사가 예고되고 있어 K뷰티가 아마존에서 매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뷰티 업계에서는 한국콜마가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콜마가 올해 1분기 미국법인에서 25억원, 캐나다법인에서 21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는 미국법인은 주요 고객사의 패키지 부자재 공급 부족, 신제품 교체 시점에서 재고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고, 캐나다법인에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사 수주 실적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어 업계는 향후 한국콜마 실적 반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물가 둔화 美, 9월 금리인하 무게... 한은, 10월 대응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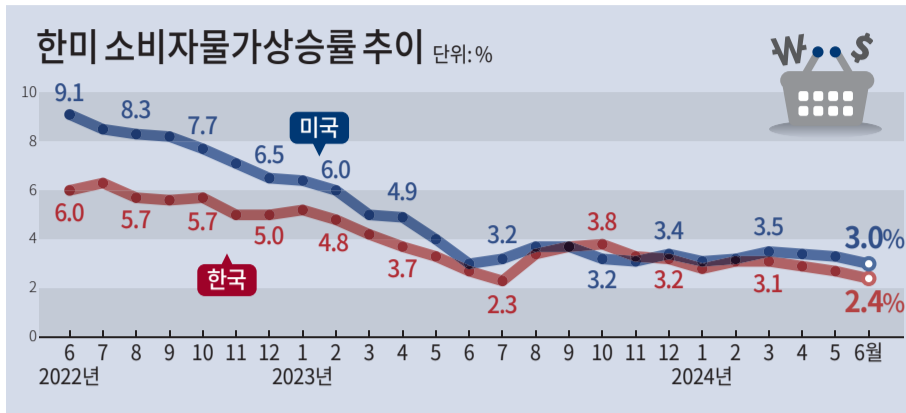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하락 고금리·고물가에 기업들 고용 줄여 한은 “외환시장 고려해 신중 대응 환율 부담, 조기 금리인하 어려워”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대에서 3%대로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고용시장도 둔화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10월부터 인하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1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00%로 집계됐다.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88.7%, 50bp 인하할 확률은 11%다.

전날(15일) 오후까지만해도 25bp 인하할 확률은 88.7%로 동결확률은 11.3%를 기록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두 목표는 (전보다) 훨씬 나



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미국은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둔화하며 9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 2022년 6월 9.1%에서 올해 6월 3%까지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1월 3.1%였던 CPI는 3월 3.5%까지 오른 뒤 6월 3%로 내렸다. CPI에서 3분의 1은 주거비다.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와 집주인이 기대하는 임대료가 모두 내리면서 CPI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개인소비지출(PCE)은 5월 기준 2.6%로 올 초부터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만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의 복병으로 작용했던 주거비까지 내리면서 오는 9월 물가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연준이 금리인하를 논의할 것이라 분석이다.

고용시장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6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35만3000명 증가한데서 3월 30만3000명으로 감소한 뒤 6월 20만6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3.8%→4.1%로 상승했다. 고금리·고물가를 버티지 못한 기업이 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인하를 위해

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
7월 30~31일	11일
8월	22일
9월 17~18일	
10월	11일
11월 6~7일	28일
12월 17~18일	

자료/한국은행

선 물가하락과 함께 고용시장 둔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고용이 줄면 소비자는 소득이 감소해 지출을 줄인다. 수요(지출)가 감소하면 물가하락,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월가는 연준이 7월 지표를 통해 방향을 분명히 한 뒤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과 맥쿼리는 금리인하시기를 11월과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다. 라자드 자산운용의 로널드 템플 수석시장전략가는 “9월 금리인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말했다.

◆韓,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하 어려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시기는 9월 이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2.4%로 4월부터 3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봤을 때) 금리인하를 논의할 만한 여건이 됐지만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400원대까지 오른 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1300원 중후반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다만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2.8원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앞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며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공공요금, 유가상승 등 물가상승압박이 많은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내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은 “美 소비 감소에, 韓 수출도 추춤 예상”

美-유럽 소비 흐름 변화·수출 전략 유럽, 제조업 개선→소득·소비 증가 韓, 美 수출 줄고, 유럽 수출확대 예상

팬데믹 시기 급격히 증가한 미국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늘어난 초과저축이 고금리·고물가로 쪼그라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지역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며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소비 중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에서 소비는 67.9%를 차지한다.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美, 초과저축 줄자... 자동차 등 소비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2분기 연속 3% 증가한 미국의 소비는 올해 1분기 1.5%, 4~5월 1.2%로 둔화했다.

서비스소비는 의료·금융·여가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했지만 재화소비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IT기기 등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다. 자동차 소비는 지난해 7~12월 전기대비 -1.7%에서 올해 1~5월 -3.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IT기기는 같은 기간 9.9%에서 1.3%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고민지 조사국 국제종합팀 과장은 “저소득층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품 등 생필품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고금리·고물가상황이 길어지면서 초과저축(장기추세 수준을 웃도는 저축)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지며 초과저축은 2021년 8월 기준 2조1000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며 올해 4월 초과저축은 -2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께 초과저축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일자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끼쳤다. 올해 2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17만7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21만

2000명)와 비교해 4만명가량 줄었다. 향후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가 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과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된 초과저축이 올해 3월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생산→소득→소비 순환

반면 유로지역의 소비는 미국과 달리 이례히 회복하는 추세다.

이현아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유로지역은 미국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는데, 팬데믹 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의 실질소득이 부진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에너지 지출도 크게 늘어난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유로지역은 저축동기가 강해지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저축율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보다 2013~2019년이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2013~2019년 18%대에서 2020년대 20%대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유럽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지난달 수입물가 다시 상승세... “1380원대 고환율 여파”

한은 ‘202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입 142.76, 한달 전 비교 0.7%↑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

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물가지수는 142.7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지난 5월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과 일부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중동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지난 5월 84.04달러에서 6월 82.56달러로 1.8% 하락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6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380.13원을 기록했다. 5월 1365.39원 대비 1.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4% 올랐다.

과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한 화학제품도 수입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일부 화학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나프타 등의 물가가 상승했다”며 “이들의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중간재는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5% 및 0.7%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9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2.2%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

했다. 이 또한 환율 영향이 컸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농림수산물 0.3% 올랐다.

6월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7.3% 올랐다. 수입물량지수는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0%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7.7% 떨어졌다.

/나유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은행과 함께 성공할 CEO를 모십니다

NH농협은행의 전문컨설턴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앞당기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경영전문가 | 재무전문가 | 마케팅전문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전문 컨설팅 팀**



NH기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 대상 무료 기업경영전문컨설팅



NH소상공인(자영업자)컨설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무료 전문컨설팅



NH기업스마트뱅킹
앱스토어



NH기업스마트뱅킹
플레이스토어

NH농협은행 컨설팅 프로그램은 NH기업스마트뱅킹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

 **NH농협은행**

與 지지자 간 육탄전까지... 극한 대립 속 '심리적 분당' 우려

합동연설회 중 물리적 충돌 발생
韓 “모 후보 지지자, 연설 방해 폭력
민주주의 허용 이견 범위 아냐”

元 “韓, 허위사실 무차별 유포
선관위, 즉각 수사 의뢰 촉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진 데다가 지지자 사이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당 대표 선거 이후에도 깊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15일 한동훈 후보의 연설 중 지지자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훈 후보는 관중석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기를 중언부언하고 질서를 갖춰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당 대표 후보 측도 한 마디씩 보탰다. 한동훈 후보 측은 정광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 일부가 연설중인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자 경호원과 당직자들이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다”며 “한 후보는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런 사전 기획된 정치 폭력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이견의 범위가 아니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미디어본부 공보단 입장문을 통해 “특히 한 후보와 동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자는 상대 후보 지지자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선관위는 사실상 수사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한동훈 후보 측은 원희룡 후보 측의 책임인 양 허위사실까지 무차별 유포하고 있다”면서 “원 후보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하며, 당 선관위는 즉각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

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우리 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원희룡 후보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 후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는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등으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원희룡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기에 몰입하며 상호 비방과 난타전을 조태했다”며 “괴멸적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전당대회가 더 이상 과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선당후사는 실종되고 분열과 충돌로 얼룩진 국민의힘을 지켜보며 국민과 당원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태에 당 대표 선거 이후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당대표 후보들께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극한 대립 속에서 누가 대표가 돼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가 난파 상황인데 선장이 된들 미래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라며 “전당대회가 이렇게 공멸의 길로 간다면 승리자 또한 절반은 패배자다. 후보자들에게 자중자애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공식 행사 중 발생한 폭력 사건에 당 안팎이 시끄러워지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고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모든 후보 캠프에 지지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 관리를 요청하는 ‘합동연설회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韓-美,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주요 정치 현안 대해선 언급 없어

국무회의서 나토 순방 성과 알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강조
장마전선 북상에 재난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미국 순방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성과와 호우 피해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 당시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은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NCG 출범 1년 만에 미 핵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침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미 기간 정국을 달군 국회 대통령 탄핵청문회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순방 성과 등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데 대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집중호우 대응 지시를 수 차례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역사왜곡 논란 사과

논문 표절 의혹 대해선 부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사진)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쿠데타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 결과, 표절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91년 2월에 김 모 씨가 발간한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자료를 띄워놓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후보자 논문이 있는데,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베낀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93년 5월) 그 당시 정부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



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며 ‘12·12는 군사 쿠데타적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다”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에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란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기에 부적절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수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민수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논문 표절률 4%를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물음에 “제가 듣기론 10%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

與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경영계에서 노사관계의 균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태홍 기자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금리 ↓ 막판 가계대출 수요 증가 우려

채권 금리 2년여 만에 최저 기록
코픽스 전월대비 0.04%p 떨어져
주담대 변동금리 연 3.76~6.55%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도 앞뒤

가계대출 증가흐름 지속 예상
금융당국,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 자금비용지수)가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올려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만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6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3.52%로 전월(3.56%)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6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잔액 기준(3.73%)과 신잔액 기준(3.17%) 코픽스도 각각 0.01%p, 0.03%p 하락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6.554%를 나타냈다

코픽스가 하락한 이유는 은행채 등 채권 금리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연 3.356%로 지난 2022년 4월 26일(연 3.334%)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하락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으로 막판 '내집 마련' 수요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지만 9월로 미뤘고, 내년 초로 예정했던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차주별 주담대 한도는 약 3~9% 줄어들게 된다.

주택시장 회복세와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 전 막판 주택 영끌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 총액은 710조1224억원으로 지난달

(708조5723억원) 대비 1조550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552조 1526억원에서 554조 264억원으로 1조8738억원 급증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선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동형 주담대 준거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주택 매수세에 나서는 수요자 증가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회복세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 막차를 탐승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올릴 경우 또 다시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가산금리 인상도 조심스럽다"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 엄정 제재”

금감원, 주요 위법행위·사례 발표
지난 4년간 등록취소·35억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을 일삼는 보험법인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의 경우는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권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

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돼 문제가 됐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 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계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보증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고객 신뢰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
정상혁 은행장 '내부 통제' 강조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세계 무대에서 오래도록 사랑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균건한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해외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 문화를 공고히 하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5일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는 신한은행의 10개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과 해외점포장, 글로벌 전략 및 사업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글로벌 사업전략 등을 논의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신한은행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 방향에 다른 글로벌 사업전략을 논의하고, 이사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신한은행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법인의 순이익은 약 1401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약 8%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영업현장의 해외점포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업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주요계획을 공유한다. 또 전략·준법·자금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주재원 50여명과는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지향점과 비전을 논의하는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15일 오후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열린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원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소속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이상거래 꼼짝마” 빗썸, 시장감시위 신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 사무실에서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6인을 위촉했다.

이재원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초빙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하나銀, 퇴직연금 DC 수익률 5분기째 1위

원리금비보장 14.83%, 보장 3.85%

은행권 전체 1위다.

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이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최근 1년간 하나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원리금비보장상품 14.83%, 원리금보장상품 3.85%다. 2023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도 36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7.2%로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금은 보장되면서 매월 이자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 월 지급식 기타과생결합사채(DLB)'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연금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손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연금 더드림라운지' 운영 등 손님의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현대차·기아, 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인다

한국전기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운영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기 호환성에 대한 걱정없이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기아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손잡고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구축해 사용자 친화적인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만든다.

현대차·기아는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전동화시험센터장 한동희 전무,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급변하는 전기차 생태계의 다양한 완성차 및 충전기 제조사 간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통해 한층 높은 전기차 충전 호환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각각의 제조사별로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충전 호환성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완성차 제조사와 충전기



16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한국전기연구원(KERI) 김남균(왼쪽) 원장과 현대차·기아 R&D본부장인 양희원 사장이 전기차 관련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시스템 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양방향으로 직접 시험하는 한 단계 높은 상호운용성 검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과 초기 운영 ▲적합성 시험 기준 확립 및 신기술 적용 ▲시험장 운영 방안 개선 및 결과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활동 ▲시험 참여자의 국내외 확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는 15일 부산공장에서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양산 개시와 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양산

부산공장에서 1호차 생산 기념식 개최

르노코리아가 올 하반기 기대작인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생산에 돌입했다.

르노코리아는 15일 부산공장에서 올 가을부터 고객 인도 예정인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양산 개시와 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DSUV '뉴 르

노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그룹의 전세계 공장 중 최고 수준의 생산 품질을 자랑하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된다. 또 르노코리아는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200여 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생산하며 부산 협력업체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HD현대중,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동반위 협약... 1억 상생협력기금 출연

HD현대중공업이 협력사 ESG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와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글로벌 ESG 중시 기조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조선업계 친환경 ESG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1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사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현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부터 조선업계에 최초로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해왔다. 2022년 30개 협력사, 2023년에 20개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도 협력사 2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빨라지는 'AIoT' 기술 개발

(지능형사물인터넷)

자연재해 예방 등 활용성 주목

AIoT 관련 특허출원 급증
삼성 36건 최다... LG 35건
정부, 재난관리 활용 방침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서 AI와 IoT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사물인터넷(AIoT)'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oT는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16일 메트로 취재에 따르면, AIoT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10년간 AIoT 관련 특허 출원이 연평균 20% 가까이 급증하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난달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AIoT 기반 재해 예방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AIoT를 활용해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2012년~20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다. 특

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IoT 기술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다출원으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LG전자가 각각 36건, 35건을 출원해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AIoT 기반 지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 병원 등 주요 건물과 공공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지진 감지 시스템은 고감도 지진계를 통해 지진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지진의 규모와 진원지를 예측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핵코리아는 지난해 AIoT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안양시를 대상으로 실증·운영을 위한 검증을 거쳤다. 이 시스템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위, 강우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인증기구(KOLAS)를 통해 품질을 검증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AIoT 기술을 활용해 산사태 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

된 센서를 통해 토양 습도와 기울기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주민들에게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안에 따르면, 정부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운영하는 데 AI와 IoT를 활용해 기후 재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IoT전략연구소 소장은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자연재해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윤구 특허청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AIoT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 예방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metroseoul.co.kr

E클래스, '럭셔리·고성능·편의성' 완벽 주행

메르세데스-벤츠 국내 판매량 증가
우아한 외관에 첨단기술 어우러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벤츠 E클래스는 비즈니스 세단의 필수 조건인 우아한 외관, 다양한 첨단 장치, 고급스럽고 편안한 인테리어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높은 연비 효율에 강력한 힘까지 더해 올해 1월 국내 출시 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올해 초 E클래스를 출시했으나 흥행 발(發) 물류 대란 여파로 국내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최근 차량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3월 505대에 그쳤던 E클래스 판매량은 ▲4월 2079대 ▲5월 2244대 ▲6월 2476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지난 1월에 국내 공식 출시된 E-클래스의 11세대 완전전경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을 비롯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잇는 외관 디자인, 전 모델 전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향상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등을 탑재하며 비즈니스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디젤 모델인 E 200 d 4MATIC 익스클루시브는 복합 연비 15.4km/L,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 220 d 4MATIC 익스클루시브 실내.

고속도로 연비는 무려 18.4km/L다. 차량의 연료탱크 크기가 66L인 점을 고려하면, 가득 주유했을 때 복합 연비 기준으로 10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갈 수 있는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

E 220 d 4MATIC 익스클루시브는 4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대 출력 197ps, 최대 토크 44.9 kgf·m를 제공한다. 특히 최대 토크가 엔진 저회전 구간인 1800~2800 rpm에서부터 발휘되기 때문에, 출발부터 호쾌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더 뉴 E-클래스는 국내 인증 기준 이전 세대보다 2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로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자랑하며, 세밀하게 설계된 차체 형태, 공기역학적 디자인 요소 및 방음재 등을 통해 동급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다. 트렁크 공간은 최대 540L까지 적재 가능하다.

E-클래스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 주행 보조시스템이 탑재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가장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전 라인업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이외에도 ▲디지털 키 ▲MBUX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앞좌석 무선 충전 ▲파노라믹 선루프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핸즈프리 액세스 ▲전동 트렁크 등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

SKT, 美 SGH에 2억弗 투자...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강화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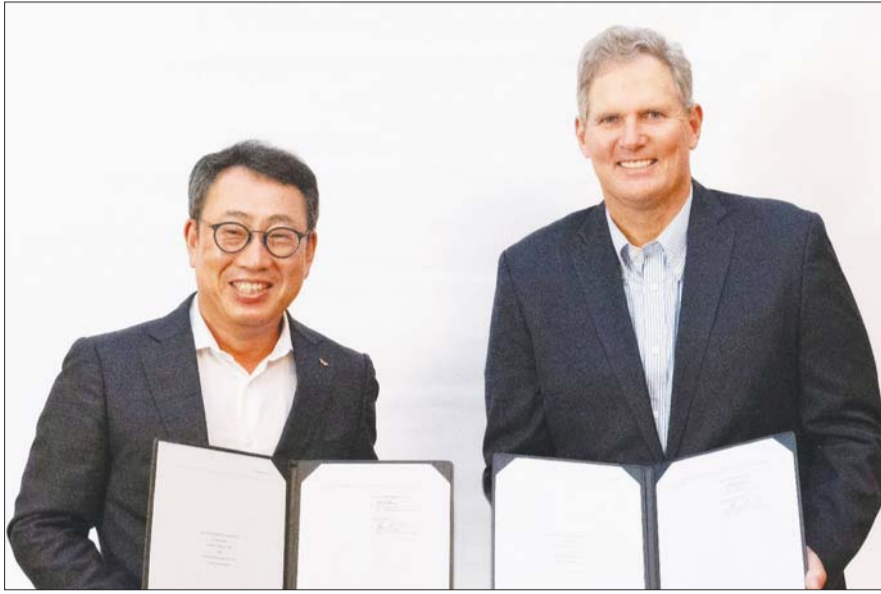
인공지능 분야 최대규모 투자 단행
2800억 규모 전환우선주 계약 체결
AI 기술력 강화에 SGH 전략적 제휴

SK텔레콤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SGH)에 2억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K텔레콤이 AI 분야에 투자한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SGH와 이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주 전환을 통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SGH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로 구성된 AI 클러스터를 설계·구축·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축한 이력이 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최대 규모의 AI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AI파라미터 전략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실행



유영상 SKT CEO(왼쪽)와 마크 아담스 CEO(오른쪽)가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략으로 'AI밸류체인' 3대 영역인 ▲AI반도체 ▲AI인프라 ▲AI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엔트로픽(LLM)·랩다(GPU as a Service)·퍼플렉시티(AI 검색)에 이은 SGH(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컴퍼

니 도약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 SKT-SHG, 손잡고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동 공략

SK텔레콤은 이번 투자에 대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과 SGH는 올해 협력 파트

너십을 추가로 체결해 AI 데이터센터·엣지 AI·미래 메모리 솔루션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보다 구체화 할 예정이다.

국내의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관리 시스템, 액침냉각 등의 솔루션에 SGH의 AI 클러스터 구축·운영 역량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용 특화 엣지(Edge) 솔루션에 통신 인프라와 AI를 접목한 '텔코(Telco) 엣지 AI 솔루션' 개발도 함께 할 계획이다.

마크 아담스 SGH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과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SGH에 대한 투자와 협력은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AI 변혁의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투자와 협력을 지속해 글로벌 수준 AI인프라 사업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GH, '메타' GPU AI 클러스터 구축

... "전세계 최대 규모"

1988년 설립된 SGH의 주력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이다. 이 회사는 ▲수천~수만 개 GPU로 구성된 AI 클러스터 설계 ▲서버·랙·네트워크·스토리지 설치 및 성능 최적화 ▲AI 클러스터 모니터링·유지보수 등 AI 클러스터의 설계부터 구축·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 특화된 엣지(Edge) 솔루션과 메모리 모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약 14억4000만 달러(한화 약 2조원)를 기록했다.

현재 GPU 누적 구축 규모만 7만 5000개에 달한다. SGH는 지난해 메타의 GPU 1만6000개 규모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AI 클러스터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차세대 GPU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볼티지 파크'의 GPU 2만4000개 규모 AI 클러스터 운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티웨이 "유럽노선, 대형항공사보다 저렴하게"

파리·로마·바르셀로나 등 취항
편도 기내식 2번·넓은좌석 제공
"특정일 제외, 합리적 운임 선택"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진출하면서 단거리 운항에서 누리던 구조적 이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으로 유럽 노선에 취항할 기회를 얻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취항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8일부터 파리 노선 운항에 들어가는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노선인 만큼 쾌적한 좌석 환경과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편도 기준 기내식을 2번 제공하기로 했으

며, 좌석 또한 기존 B737 기종 대비 11cm 넓은 A330-200 항공기를 도입한다. 동시에 기존 대형항공사에 비해 항공권 가격마저 매우 저렴한 상태다.

그동안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는 기내식 서비스를 유료화 하고, 좌석 밀도를 높여 더 많은 승객을 태우므로써 대형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비행하는 단거리 노선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항공권 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하지만 10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장거리 노선에서는 이 전략을 취할 수 없다. 유럽까지 가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동안 좁은 공간과 허기를 참을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에서 장거리 노선인 미주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는 31인치인 좌석 간격을 33인치로 늘리면서 고객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수익에 직결되는 좌석 수가 18석으로 줄어들었다.

티웨이항공은 대형항공사 대비 저렴한 항공권 가격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운 애널리스트는 티웨이항공이 한국 대형항공사 대비 80% 수준으로 운임할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비교적 저렴한 외항사나 서비스가 좋은 대형항공사가 고객을 흡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줄여 항공권 가격을 낮추기도, 항공권 가격을 높이는 대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특정한 날짜를 제외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대형항공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특가 운임이나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de@

갤Z 폴드·플립6, 드론으로 하루만에 배송

삼성, 제주도·여수 등 인근 섬 실시

삼성전자가 오는 19일부터 제주도·여수·통영의 인근 섬 지역을 대상으로 갤럭시Z 폴드6·플립6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제품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내 최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협업체별로 구축돼 있는 드론 기기, 이착륙 존, 관제 시스템 등 드론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한다.

드론을 배송에 활용하면 선박 운항 종료 후 물류 취약 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하다. 제품 배송 기간도 약 7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도서 지역 소비자가 매장 방문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오는 1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향후 적재 중량 10kg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 버즈, 워치 등



삼성전자, 드론 배송 서비스 시행. /삼성전자

갤럭시 모바일 품목 중심으로 배송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제주도 내 삼포리·금능 등의 드론센터에서 이륙해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3개 거점으로 배송을 실시한다.

여수 지역은 하화도, 제도, 송도 등이며 통영 지역은 비산도, 좌도, 만지도 등 10여개 이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KCC 공정거래 문화 만든다

KCC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KCC는 지난 15일 정재훈 대표를 포함한 40여명의 임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서약하고 'KCC Compliance Program 2.0'(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시행을 선언했다고 16일 밝혔다. KCC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후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온 후 올해 더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KCC Compliance Program 2.0'을 발표·시행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 상반기 매출 500억 돌파

영업익 31억·순이익 38억 달성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기업인 LS마린솔루션이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LS마린솔루션은 2024년 상반기 누적 매출 520억원, 영업이익 31억원, 순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265억원에서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LS마린솔루션이 상반기 매출 5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11년 629억원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 1분

기 각각 28억원 적자, 19억원 적자에서 2분기에 59억원 흑자, 57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처음 수행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프로젝트 공사가 올 2분기에 본격 진행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 사업은 SK E&S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운용사 CIP가 전남 신안군에 건설하는 99MW급 사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인터, 캐나다에 시장개척단 첫 파견

"중소 해외진출 동반자 될 것"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8~12일 친환경·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11곳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해외 진출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시장개척단 참여 기업에 현지 바이어 46곳을 소개하고 70건

의 일대일 매칭 상담을 주선했다.

또 시장개척단 참여 기업 제품과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 사업장 방문을 지원했다.

참여 기업인 한국워터테크놀로지는 캐나다 토론토 서부 필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하·폐수 침전물 감량화 기술을 선보였고, 블루센은 현지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질 측정 기술을 시연하며 대량 구매 논의가 이뤄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h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기술특례상장 제도 “부실기업 양산” vs “장기투자 종목”

이노스페이스·엑셀세라퓨틱스 상장일 고꾸라진 주가 회복 못해 투자자, ‘실적 부풀리기’ 우려 업계 “상장일 주가로 판단 어려워”

올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상장 꼼수’를 언급하며 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투자자들의 의견과 단기간에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도 옹호’ 의견이 맞서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이노스페이스와 엑셀세라퓨틱스는 여전히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2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 엑셀세라퓨틱스 주가는 8330원에 보합됐다.

이노스페이스와 엑셀세라퓨틱스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투자자의 우려와 증권업계의 낙관적인 전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기술특례상장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상장일 고꾸라진 주가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커뮤니티에서 지난해 파주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언급하며 기술특례상장이 ‘부실 기업’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장 최근 상장한 기업인 엑셀세라퓨

틱스의 경우는 상장 첫날(15일) 주가가 장중 공모가의 1.3배 수준인 1만29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며 결국 공모가 1만원 대비 16.70% 내린 833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새내기 공모주들이 상장일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그 이유를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 찾았다. 두

기업 모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상장 기업이 일정한 기술력과 성장성만 확보하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IPO가 가능하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그 종류가 나뉘며 전문 평가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 기술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기술성 특례는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또는 BBB 이상 등급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최소 재무 요건(‘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상당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장기간이 지나도 재무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술력에 의존해 주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술성과 공시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는

해당 제도 탓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은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첫날에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서도 “해당 기업의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특례상장 요건과 심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별개로 시장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당장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도 미래가치를 두고 장기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 오히려 많다”며 “2020년 이후 IPO 시장을 보면 상장 첫날 매도세가 강해 상장 기업의 가치를 상장일 주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中 ETF 변동성 커... 상승세에도 유의해야” TIGER 프리미엄 ETF, 순매수 1兆 돌파

中 관련 ETF 평균 6% 수익률 정부 경기 부양책 긍정적 영향 올해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중국정부의 증시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중국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중국 관련 ETF들은 평균 6%가량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TIGER 차이나향생테크레버리지 6.86%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 ET(7.41%), KODEX 차이나H레버리지(4.56%),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 SOLACTIVE(4.33%)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4.09%), TIGER 차이나향생테크(3.86%),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3.69%) 등도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관련 ETF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이미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 관련 ETF의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시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대주 거래 잠정 중단, 공매도 증거금 비율 상향 조정 등 증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심리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일주일간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와 TIGER 차이나향생테크를 109억원, 1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한달로 기간

을 넓히면 775억원, 310억원어치 사들였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5.1%)를 밑도는 4.7%를 기록하면서 주요 투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4.7%로 낮췄으며 골드만삭스는 기존 5%에서 4.9%로 내렸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15일에 개막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20기 3중전회)를 변곡점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양책 강도와 정책 기조 확인 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강화, 호적제도 개혁 시행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부재하다면 지수보다는 업종·테마 접근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운용, ETF 5종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프리미엄 커버드 월배당 ETF’ 5종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합계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4종이 올해 신규 상장 ETF로, 최근 커버드 월 전략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월배당을 추구하는 TIGER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3555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커버드 월 ETF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월 신규 상장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순자산 규모는 6026억원을 넘어섰다.

‘+프리미엄’ 전략커버드 월 ETF에 대한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다. ‘+프리미엄’이란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 월 ETF와 달리 목표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23년 6월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15일 기준 연초 이후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ETF’는 2824억원, ‘TIGER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2454억원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커버드 월 2.0 ETF’라 불리는 ‘TIGER 초단기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강화되는 추세다.

초단기 옵션을 활용해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 하고, 지수 상승 참여 비중을 극대화 한 이 전략은 기존 커버드 월 ETF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정윤 기자

TSMC·브로드컴 등... AI 인기 ‘여전’

해외주식 Click

TSMC, 9523만달러 순매수 애플, 순매수 상위 종목 1위 달성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열풍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던 서학개미들은 전반적인 AI 관련 종목으로 선호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9일~15일) 서학개미들은 타이완세미컨덕터매뉴팩처링(TSMC)을 9523만달러(1319억원) 순매수했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업체로 엔비디아,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아키텍처(설계 방식)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 주문을 25%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신형 칩 모델 수요가 높은 편인데 신규

칩은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다. 게다가 이번 엔비디아 신형 칩은 TSMC가 생산했던 제품 중 가격대가 가장 높아 호실적을 견인할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실제로 장분석업체 LSEG가 애널리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SMC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약 2361억 대만달러(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9% 성장한 수치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브로드컴(6977만달러), 인텔(3642만달러) 등 AI 반도체 관련 종목을 사들였다.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 뒤 1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난달 이용자 수 245만명

삼성증권의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이 지난달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삼성증권 ‘엠팝(mPOP)’의 6월 이용자 수는 245만명을 기록했다. 홈 화면 개편 관련 고객 수용도 조사에서 투자정보 조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들어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국내외 주식 차트·투자정보 확대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투자정보 콘텐츠 이용을 확대하고자 뉴스·리포트·시황을 매일 선별해 제공하고 있고, 4월에는 채

권·펀드 상품 노출 화면을 개선해 금융 투자콘텐츠에 대한 진입점도 제공했다.

또한 최근에는 ‘엠팝(mPOP)’의 첫 화면인 홈 화면을 개편했다. ‘오늘의 투자’와 ‘내 자산’ 2개의 메뉴 탭으로 구분했다. ‘오늘의 투자’ 탭에서는 다양한 종목 정보 및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종목 순위’ 상층, 거래대금 등에 따른 실시간 랭킹을 기존 가로형 카드 방식에서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신설된 ‘종목의 발견’ 메뉴는 실시간 매매상위 종목과 삼성증권 주식투자수익률 상위 100명 고수들의 매매상위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들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관희 기자

“부품 국산화로 글로벌 도약 목표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쟁쟁한 회사들을 제치고 국산화를 통해 ‘글로벌 최고의 부품 전문회사’를 꿈꾸며 달려가는 기업과 기업인이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에서 시작해 전력반도체, Solar EV System, 그래핀을 이용한 마스크(Mask) 제작 공정에 사용하는 PE-ALD 장비 등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먹거리까지 확보하고 있는 파인솔루션(PineSolution)과 이기연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기연 파인솔루션 대표가 경기 평택에 있는 2공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이기연 파인솔루션 대표

파인솔루션은 경기 평택 서탄에 본사를 포함한 1공장과 본사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평택트립테크공단에 2공장을 각각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다.

먼지 하나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크린룸은 1공장에 약 650평 규모, 2공장에 약 900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최고의 글로벌 부품회사가 되자”는 목표가 회사 설립 취지다. 장비·부품 분야에서 국산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국산화’를 외치지만 정작 국산화를 위한 지원과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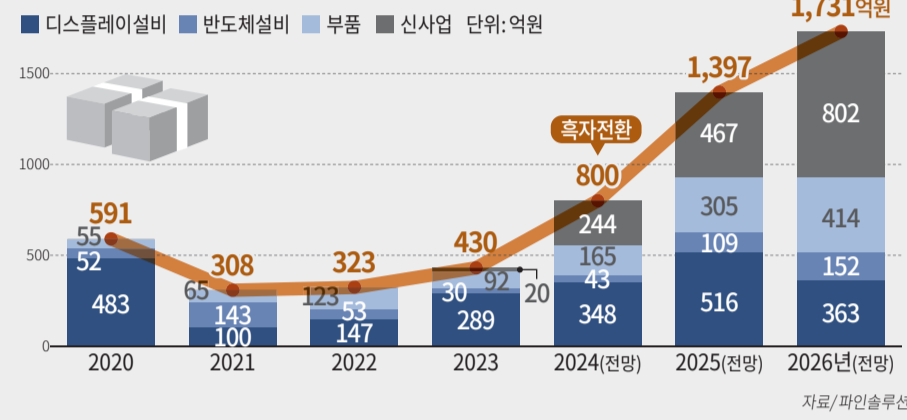
이기연 대표가 평택2공장을 안내하면서 전한 말이다.

파인솔루션이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을 시작한 APC(Auto Pressure Controller),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쓰이는 진공 장비의 공정압력을 조절해주는 이 제품은 현재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선 4~5개 회사가 개발하고 있지만 해외 제품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파인솔루션은 다르다. 주거래처인 원익IPS로부터 양산 성능 평가를 마치고 올해 2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도 실장 및 퀄(Qual)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이들 부품을 국산화하면 외산 대비 20~30%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수요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파인솔루션 매출실적과 전망



자료/파인솔루션



“글로벌 최고 부품사’ 회사설립 취지 ‘국산화’ 외치지만, 지원·평가 아쉬워

시장 95% 외국계 기업 장악 ‘APC’ 삼성 반도체공장서 실장·퀄 테스트 누적 특허출원 14개, 추가 4건 진행중

작년 매출 430억, 올해 목표 800억 대신증권 주관사 선정, IPO 준비중



있으니 AS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파인솔루션이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해 대기업 사에서 테스트를 예정하고 있는 진공 장비의 압력을 읽는 부품 CDG(Convectron Diaphragm Gauge)도 미국 MKS 등 외국계가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파인솔루션은 CDG를 내년 상반기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 기업으로 유명한 원익IPS 출신이다. 10년 가량 다니면서 장비 설계부터 구매까지 대

부분 분야를 섭렵했다. 그러다 ‘요소 기술’이 부족해 외국계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까워 2015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다.

이 대표는 회사를 만들자마자 사내부설연구소부터 차렸다. 국산화를 위해선 연구개발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현재 120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 중에선 절반 가량이 기술엔지니어들이다. 최고재무관리자(CFO)도 기술자 출신이니 말 다했다.

현재 누적 특허만 14개에 달하고 추가 출원도 4건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CVD 설비용 자동 개폐 밸브 장치 개발’ 등 2건에 대한 정책과제도 하고 있다.

파인솔루션은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설비(장비)가 주요 캐시카우였다. 이익률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지만 먹고 살려니 할 수 밖에 없었기도 했다. 그러다 부품과 신사업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에 점점 변화를 주고 있다.

향후 효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Solar EV System’, 전 세계에서 한 회사가 독점해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엔 개발이 끝날 대당 약 60억원 수준의 ‘SI C 전력반도체 WLBI System’, 그리고 ‘그래핀용 PE-ALD System’ 등이 파인솔루션의 대표적인 뉴 비즈니스다.

이 대표는 “올해와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이들 제품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기대 실적은 보수적으로 잡았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파인솔루션은 지난해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설비가 289억원(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부품(92억원), 반도체설비(30억원), 신사업(20억원)이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은 적자(-57억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다. 올해 목표 매출은 800억원이다. 현재까지 순항중이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선다. 영업이익 목표는 42억원이다.

이 대표는 “내년엔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 1397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품(305억원 목표)과 신사업(467억원)이 약진한다. 기존의 디스플레이설비(516억원)도 든든하게 받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해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해오고 있는 파인솔루션은 현재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에서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력’과 ‘국산화’에 대한 노력이 인정돼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다만 기술특례가 여의치 않더라도 내년엔 일반상장 절차를 밟아 추가 성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영업조직이 따로 없다. 모두가 다 영업을 한다. 같이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아직 버는게 많지 않아 제대로 챙겨주질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미소)”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직원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2000만원을 조용히 내놨다. 많지는 않지만 휴가비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에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파인솔루션 평택 2공장의 클린룸 전경.

올해 수출 목표 7000억 달러 달성... “민관 원팀 총력전”

산업부, 제5차 민관합동 대책회의 정부, 5대 핵심업종 목표 상향 지원 해상물류 등 하반기 4대리스크 관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한 추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334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역대 최대인 연간 6891억달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이상목 아모레퍼시픽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 목표치는 100억달러 올린 1350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1000억달러(+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14억달러), K-뷰티·K-푸드 230억달러(+8억달러) 등 하반기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인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도록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

용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수출 조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 해외인증 애로 발생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제조 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제도’(9월)를 신설한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추진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올림피아와 연계한 K-FISH 홍보회(7월), 하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상담회(11월)를 개최하고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 선반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하고, 미국 대선과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유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지”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사업재편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

산업부,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대상·범위 등 보강 상시법 전환

기업 사업재편 요건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 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상,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가 무상 이전하기로 한 통신·스마트폰·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삼성전자의 나눔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분야는 통신 124건, 스마트홈·헬스케어 107건 등 총 231건이다.

또 NTB에 등록된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의 유상 기술 30건도 함께 소개하고 특허상세정보(SMK)를 제작, 배포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때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기술에 대한 사전 상담 수요를 접수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 목표나 특허 사용처 등 수요를 확인해 나눔받은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중 이력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NTB 누리집(www.nt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유류 기술 자원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IP) 상담 등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자동차 리콜 전 운전자 개별 수리해도 보상” 기업 입사준비, 공무원 인기 제치고 첫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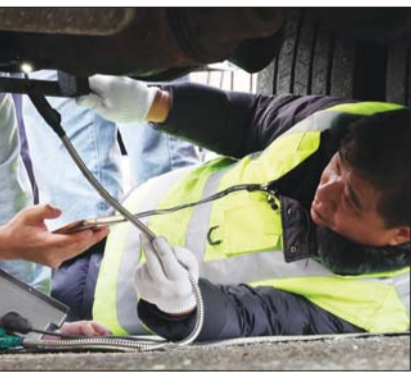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



지난 2023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계청, 5월 청년층 경제활동 조사

올해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보다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졸업 후 첫 취직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인 11.5개월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고용동향 통계에 기반한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9.7%로, 일반직 공무원(23.2%)을 앞질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기업체가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p) 증가한 29.7%로 가장 높고, 일반 공무원은 23.2%로 6.1%p 감소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도 이래 처음으로 1, 2위 순위가 변동돼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그 뒤를 이었다.

임 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은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무려 40.7%에 달한 바 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취직하기까지는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1.1개월 늘어났고, 조사 이래 최장 기록이다.

졸업 후 3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7%는 첫 직장을 구했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나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한용수 기자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팜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이강덕 포항시장, 현장소통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 준비

민선 8기, 7.4兆 기업 투자유치
신산업 중심 지식 산업도시 등 목표
“경쟁력 높여 더 큰 미래 완성할 것”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간의 포항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원 및 각종 단체 간담회, 기업 방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방문 등 현장소통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시민과 함께 변화를 준비하며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 후 민선 7기에는 핵심 사업 본격 추진, 도시 경쟁력 도약에 중점을 둔 결과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2014년부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의 공감과 소

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면서 철강에 편중된 지역

산업 구조를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다 변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정주 환경 개선 등 핵심 사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는데 중점을 뒀다.

그린웨이의 대표사업인 철길숲이 준공(19), 해도도시숲 조성(20) 등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하고 함께 법정문화도시 지정, 포항구항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시정 각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선 8기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조 4000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누적 투자 16조 5000여 억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분야에서

이차전지에 이어 최근 바이오까지 2개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포항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 고부가가치의 지식 산업도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에너지허브도시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균형발전 거점도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해양문화관광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거버넌스 도시로 포항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0년 간 국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0만 시민들과 함께 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에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더 큰 포항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일~10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한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경상남도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경남 도민 10만여 가구에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지난 하반기에 탄소 중립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도민으로서, 과거 1년~2년간 월별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도민 10만여 가구이다.

인센티브 지급 내역은 총 97150가구 중 ▲현금 88348가구 ▲지역상품권 4442가구 ▲그린카드 2490가구 ▲지역모금회 기부 1870가구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통영시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 마무리

통영시는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강구안 해상무대에서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 마지막 공연을 개최한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25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통영의 상반기 야간관광 콘텐트인 '투나잇 통영!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의 4번째 공연이다.

공연은 솔루스 오브 서울 브라스의 '유폐! 상쾌! 통쾌! 금관악기의 매력에 빠질 시간'이며 탱고의 대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Libertango'와 제임스본드 메들리 등 초여름 밤의 분위기를 날려줄 시원한 곡들이 약 65분간 강구안 해상무대에서 울려 퍼질 예정이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11% 늘어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대비 상반기 이용객이 10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0만6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631명에 비해 111.5% 늘어났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국내 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 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UCCN 음악분야 최종 심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산업수도이자 음악 중심도시 소개 울산만의 창의적 음악소재 내용 발표

울산시가 문화적 도시 위상 제고와 세계적 문화분야 연결망 구축을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다.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입국가·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연결망이다.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에는 서울, 부산, 대구·통영, 광주, 인천·진주·김해, 전주·강릉, 부천·원주 등 12개 도시가 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하는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 국내 공모에 음악 분야로 참가해 최종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 중 '피리부는 선인의모습'과 '배를 타고 고래를 사냥하는 선인의모습' 등을 통해 불태 선사시대 당시 음악과 산업이 꾸준히 함께 상호 발전했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음악의 중심도시임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법정문화도시 지정 등의 문화적 도약의 성과 ▲울산의 노동과 산업의 정체성이 내재된 달천철장의 쇠부리 소리 ▲12년간 지속한 지역 최초 국제음악교류 기반인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등 울산만의 창의적인 음악소재를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울산시는 8월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심사 결과에서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6월 유네스코 본부에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후 국외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5.5만명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지남해)

올해 6.4만명으로 확대 제공 계획

경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관한 '2024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경북도가 대상, 김천시와 청송군이 최우수상, 의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2023년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엔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노인 일자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노인 일자리 시군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등 20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총 1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2044억원을 투입해 5만5892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2688억원을 지원해 6만4386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해남군

김해시, 中·日 문화도시와 교류 확대

도자교류전, 조각 페스티벌 등 개최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김해시가 하반기에도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 왕성한 교류를 이어간다.

먼저 한일중 도자 교류전인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가 오는 11월 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7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시작된 도자 교류전은 한국과 중국, 일본 각 3명씩 총 9명 도예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26~27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만찬부대 행사에 초청돼 3국 정상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전시됐다.

8월에는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제와 ▲동아시아 페르소나, 탈 아시아전이 개최된다. 10월에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사업들이 집중된다.

'동아시아 조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한일중 팝콘서트 ▲동아시아 3국, 현으로 김해를 물들이다 등이 진행되며,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 행사'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김해시는 지난 4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평화와 공존의 바다'라는 주제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무나카타시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알리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해남군,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이행성과와 체감도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4개 평가군별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3위, 도내 1위의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남도내에서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민선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연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장기 미해결 과제 및 규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의 관심 속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비롯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 부여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등을 연중 실시해 적극행정이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굿즈 받으려고 책 산다”... 독자 발길잡는 서점가 ‘굿즈 바람’

예스24 ‘굿즈’ 도서 객단가가 높여 경기도 박물관과 스페셜 컬래버

알라딘 월간 독서 굿즈 제작 피너츠·어린왕자 등과 컬래버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매 욕구를 돋우고자 도서 시장에 등장한 ‘굿즈(기념품)’는 어느새 일상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굿즈는 도서 판매에 있어 객단가를 높이는 효자 상품이다. 굿즈의 경우 최소 구매 조건을 충족해야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1권만 구매하려던 고객도 마음에 드는 굿즈를 받고자 2~3권 이상을 더 구매하게 돼 도서 판매 객단가가 높아진다.

◆예스24·알라딘, 굿즈 판매에 ‘진심’

16일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실제로 굿즈가 도서 판매 평균 객단가를 약 2배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굿즈를 구매한 고객들의 도서 판매 객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는 등 도서 구매 독려 및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흐름이다.

이미 오프라인 서점은 서적뿐만 아니라 문구와 잡화를 판매하는 멀티 매장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알라딘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굿즈 판매에 뛰어들었다. 독서대, 책갈피, 문진 등 독서용품과 문구류를 상시 판매중이



① 예스24X신이머마 컬래버 굿즈. ② 예스24X키티버니포니 컬래버 굿즈. ③ 피너츠 알라딘 25주년 한정판 굿즈. /각사

며, 이에 더해 계절에 맞는 시즌 제품이나 새로운 컬래버 콘텐츠를 활용한 신제품과 생활용품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매달 ‘책 읽는 사람들의 생활용품연구소’를 통해 월간 독서 굿즈를 제작하며 7월 한달간 알라딘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피너츠’ ‘어린왕자’ 디자인 스튜디오 ‘서커스 보이밴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예스24도 굿즈수요에 대응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체 굿즈를 기획 및 제작하는 ‘상품기획파트’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굿즈를 선보여왔다.

예스24에 따르면 최근 인기아이템과 협업할 브랜드 등 시장 조사를 진행해 굿즈 아이템을 도출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된다. 디자인과 샘플 제작, 양산에 약 5개월이 소요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탄생한 예스24의 굿즈 품목은 연평균 약 96종, 제작 수량은 연평균 65만여 개에 달한다.

◆문화계와 이색 컬래버로 독자 소비력 자극

최근에는 서점들이 출판사와의 협업을 넘어 한층 차별화된 컬래버 굿즈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유명 라이선스가 아니더라도 박물관, 소설 브랜드, 편집숍 및 디자인 브랜드 등 보다

트렌디하고 독자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예스24는 지난 4월 경기도박물관과 협업한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선보였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책가도(책과 함께 각종 골동품, 문방구, 화훼 등을 주제로 그린 그림)’를 독서대, 장패드, 머그 등에 담아낸 굿즈로, 전통의 색을 효과적으로 입혀 SNS에서 “예스24만이 할 수 있는 콜라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신년을 맞아 폐지 줍는 시니어의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 브랜드 ‘신이머마’와 협업한 콜라보

굿즈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니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마음을 굿즈에 담았으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감성의 소반, 쟁반, 글라스 등 제품으로 4050세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전체 굿즈 구매자 중 40대 여성은 평균 36%, 50대 여성은 평균 8%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신이머마 굿즈 구매자의 경우 40대 여성이 46%, 50대 여성이 13%의 비율로 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그밖에도 지난해 성수동 편집숍 ‘제인마치 메종’, 2022년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와 디자인 브랜드 ‘텐스(THENCE)’ 등 다채로운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굿즈를 내놨다. 특히 키티버니포니와 텐스 콜라보 굿즈의 경우 20대 여성들의 선호도가 돋보였다. 키티버니포니 굿즈는 20대 여성 구매자 비율이 13%, 텐스 굿즈는 9%로, 전체 굿즈 구매자 중 20대 여성의 평균 비율인 7% 대비 높았다.

알라딘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최근 2~3년 사이 굿즈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며 “이러한 활발한 협업과 굿즈 출시가 고객들의 방문과 도서 판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글로벌 소비자에 ‘비비고’ 알린다... 인천공항에 단독매장

CJ제일제당, 1여객터미널 2곳 오픈 연내 2여객터미널 2곳에 오픈 예정 김·김치 등 韓 방문 기념품 위주 판매

CJ제일제당 비비고가 가공식품 브랜드 최초로 면세점 내 단독 매장을 선보이며 ‘K-푸드 세계화 대표 브랜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잇따라 비비고 단독 매장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에도 입점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점은 명품과 화장품 등을 주요 제품군으로 삼는 면세점 업계가 가공식품 브랜드에게 단독 매장을 내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세계면세점에 오픈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단독매장 전경. /CJ제일제당

준 첫 사례다. 최근 K-푸드의 위상이나 날이 높아지는 점을 눈여겨 보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 가장 먼저 나선 비비고를 믿고 운영을 맡긴 셈이다. 두 면세점 내 비비고 매장의 매출은 예상 대비 2배 높을 만큼 초기 반응도 뜨겁다.

CJ제일제당은 김, 김치 등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해 기념품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 위주로 매대를 꾸리고 면세점 전용 K-푸드 선물 세트도 선보였다. 김밥김, 햇반 솔반 등으로 구성된 직접 김밥을 만들 수 있

는 ‘비비고 김밥키트’와 다양한 종류의 김치로 꾸린 ‘비비고 김치 선물세트’ 등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와 협업해 만든 한정판 ‘비비고x우뎀’ 제품을 판매한다. 방탄소년단 진의 2022년 첫 솔로 싱글 ‘The Astronaut’과 연관된 캐릭터 ‘우뎀’을 패키지에 적용한 비비고 떡볶이, 봉어빵, 만두 등이다.

매장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초록, 주황 등의 색들을 조합해 비비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냈고, MZ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요소들로 꾸몄다. 올해 초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 만든 새로운 비비고 BI는 인피니티 미러를 이용해 입체감 있게 나타냈고, LED 스크린을 활용해 ‘No.1 K-Food Brand’라는 점을 한 눈에 띄게 했다.

/신원선 기자

“보양식 투표 참여하고 ‘강화 섬계탕’ 받아요”

롯데마트, 장보기 이벤트

롯데마트가 중복 맞이 시원한 장보기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롯데마트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보양식 투표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1만 스노우플랜을 증정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행사 기간 중 롯데마트 매장에서 장을 보고 오프라인 전용 어플인 ‘롯데마트GO’를 스캔 후 결제를 진행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롯데마트GO’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계탕, 전복영양밥, 장어구이 중 가장 힘 날 것 같은 보양식을 골라 투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득표율 1위 상품에 투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만 스노우플랜(30명), 간편하게 깊은 맛 육수를 즐길 수 있는 ‘요리하다 강화 섬계탕’ 교환권(7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가오는 내달 12일 ‘롯데마트GO’ 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중복에 즐기기 좋은 다양한 보양식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 보양식 트렌드에 발맞추어 18일부터 24일까지 요리하다 인기 삼계탕 2종을 옐포인트 회원 대상 최대 1000원 할인 판매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CJ비비고삼계탕(800g)’을 옐포인트 회원 대상 1000원 할인과 더불어 행사 카드 결제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8082원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맛있는 집밥 프로젝트’ 전개

양념·소스류·냉동채소 기획가 선택

홈플러스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와 맛에 대한 차별화 경험을 제공하는 ‘맛있는 집밥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비대면 트렌드에서 시작된 집밥 선호 현상이 고물가와 맞물

리며 식문화 수준으로 진화한 ‘내식 전성시대’를 맞은 것에 착안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가 높은 양념·소스류, 냉동채소 등 100여 종을 엄선해 기획가에 선보인다. CJ 다담 양념류(10여 종)는 2390원, 샘표 차오차이 소스류(10여

종)는 3480원, 백설 덮밥소스(6종)와 ‘육수에는 1분링(2종)’은 각각 3990원, 7990원에 1+1 판매한다. 김치(10여 종)는 1만3990원부터 1+1 판매하고, 마늘·고추·대파 등 냉동채소류(10여 종)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대상으로 10% 할인해 판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간편 요리 재료의 인기는 2030세대 1, 2인 가구부터 5060 주부 9단 고객들까지 연령대별로 고른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리 고수들의 손맛을 대신해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는 데다 조리까지 손쉽게 해결해 줌으로써 집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 해외 각국의 이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월드소스’ 특화존을 강화한 전략도 적중했다. 실제로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간편 재료가 4~6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vitna@

“우리 쌀맛 제대로”... 식품업계, ‘프리미엄’ 시대 연다

쌀 주제 이색 신제품 붐물
하림 ‘더미식 즉석밥’ 선보
팔도 ‘비락식혜 제로’ 출시
CU 월간 막걸리 프로젝트

식품업계가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식재료인 쌀을 주제로 이색 제품을 내놓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릴 때 먹던 구수한 쌀맛을 재현한 제품들로 소비자 입맛 사냥에 나선 것. 단순히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 출시에서 더 나아가 쌀의 품질과 풍미를 강조하는 ‘프리미(米)엄’ 제품을 표방해 트렌디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선보인 더미식(The미식) 즉석밥은 ‘쌀’ 원물 자체에 집중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품미(냄새, 색깔, 식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물 붓기(가수)와 밀봉(실링) 공정을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 SA 기준)에서 진행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구수한 밥 냄새 외에 이취가 전혀 없고 밥 고유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의 공기층을 만들어 밥알이 눌리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살아있어 갓 지은 밥의 식감을 완벽히 재현했다. 이로써 국내 즉석밥 시장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즉석밥 2.0 시대’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더미식 즉석밥 /하림



비락식혜 제로 /팔도



감천막걸리 /CU

받았다. 최근에는 밥 소믈리에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종합 만족도 항목 평균 4.3점으로 총 5개 제품 중 1위를 눈길을 끌었다. 집밥(14.3%) 대비 더미식밥의 긍정평가 비율이 57.1%로 4배가량 높게 나오는 등 밥 소믈리에로부터 ‘갓 지은 집밥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쌀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글루텐프리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쌀을 활용한 건강한 디저트도 나왔다. 던킨은 한국 진출 30주년을 기념해 우리 쌀을 활용한 도넛인 ‘라이스 글레이즈드’와 ‘인절미 후로스티드’ 2종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뛰어들었다.

신제품 도넛 2종은 명품 쌀로 유명한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들어 더욱 화제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기후와 토질, 수질 등이 쌀 농사에 적합한 경기도 이

천 지역이 원산지인 매월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가에 팔리고 있다.

약케팅(약과를 사기 위한 테케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K-간식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약과도 밀이 아닌 쌀로 만들어 웰니스족을 파고들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미니 쌀약과를 내놨으며, SPC 삼립은 최근 이색 스낵인 ‘약과자’를 출시했다. 약과자는 특히 볶은 현미와 쌀가루 등 고급 원료를 사용했으며 약과 겉면에도 쌀조정을 발라 약과 특유의 은은한 시나몬향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편의점 CU가 전개하는 ‘월간 막걸리 프로젝트’도 프리미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월간막걸리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정통 막걸리를 CU 주류팀 MD가 직접 엄

선해 매월 1종씩 선보이는 막걸리 큐레이션이다.

팔도는 대표적인 쌀음료인 ‘비락식혜’를 헬시플레이어 트렌드에 걸맞게 제로 칼로리로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팔도는 지난 4월 설탕, 당류, 칼로리를 0으로 없앤 ‘비락식혜 제로’를 선보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밥알은 국내산 멥쌀을 원료로 쌀에서 당질과 섬유질을 분리한 후 당질을 버리고 섬유질만 남긴 것으로 호물호물한 식혜 속 밥알 식감을 그대로 주면서 칼로리 걱정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쌀을 이용한 음식은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소화장애인 셀리악병(Celiac Disease)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밀가루 대체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글루텐프리인 쌀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플무원 ‘#플무원’ 리뉴얼 오픈

플무원은 통합 브랜드 쇼핑 플랫폼 ‘#(샵)플무원’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쇼핑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객 참여 확대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플무원의 첫 멤버십으로 지속가능성 가치를 담은 활동 포인트 제도 ‘#플무원 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했다. 마이페이지에 개설된 ‘#플무원 라운지’는 플무원이 지향하는 식물성 지향, 동물복지, 친환경 등을 여러 활동으로 풀어냈다. 아울러 율가홀푸드(이하 율가) 인증 상품 중심의 AI 추천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번 리뉴얼을 기념하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신규 코너 방문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탬프를 찾을 때마다 #플무원 적립금 500원을 100% 지급(최대 1500원)한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울삼푸 캡슐세제’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중성 세제 브랜드 ‘울삼푸’에서 아끼는 옷을 간편하게 세탁해주는 ‘오리지널 캡슐세제(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울삼푸 ‘오리지널 캡슐세제’는 리넨, 실크, 니트, 블라우스 등 다양한 소재의 의류를 세탁해주는 캡슐형 중성세제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중성 pH를 적용해 섬유 손상 관리에 효과적이고 세탁시 보풀 발생을 줄여준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울삼푸 ‘오리지널 캡슐세제’는 캡슐 1개당 약 4kg의 빨랫감을 세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세탁량에 따라 캡슐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덴마크 판매 재개

핵불닭볶음면 등 2종 리콜 해제
 현장 대응팀 파견 등 적극 대처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등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이슈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신원선 기자

SK바사, 연 2.3만MWh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SK E&S 20년 계약... 탄소중립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에너지 기업 SK E&S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PP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6년부터 20년 동안 SK E

&S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동공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 공급받는다. 해당 규모는 매년 2만3277MWh 수준으로,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07MWh 기준으로 약 7만5000여 가구에 매월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

간 약 1만1061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약 4400여 그루를 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SK텔레콤, SK바이오팜, SK가스 등 SK 주요 계열사들은 앞서 지난 2023년 SK E&S와 국내 최대인 연간 총 규모 537GWh의 PPA 계약 사전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본부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강수형 데이터룩 대표(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화의료원 AI 기반 의료사업 다각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임산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와 협력한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이 데이터룩,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자 기관은 AI를 도입한 임산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임산부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은 임산부 건강뿐 아니라 여성 질환을 보다 잘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박세리는 한국 최초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우승해 골프선수로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 인물이다. 전 국가대표 감독에 이어 CEO, 방송인 등으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박세리의 적극적인이고 긍정적인 행보가 멀티포컬 소비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交感의
架橋

WiaT

2024
7.26-7.29
호텔인터불고 원주
컨벤션 홀



2024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 Wonju Interburgo Art Fair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나는 초대형 그림 마켓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제2회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는 '교감의 가교'를 주제로 미술작가와 애호가들이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림장터입니다.

국내 신진/중견/원로작가들은 물론, 모나코, 체코,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만나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 진행되는 '이중섭 특별전'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아트포럼, 아트스쿨, 미술극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은 이번 전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것입니다.



주최 **WiaT** 조직위원회

주관 **HB**
HOTEL INTER BURGO
WONJU

후원 **AFRAMBI**

후원 **대한민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후원 **도로교통공단**
T&N 강원교통방송

후원 **ChosunMedia**
조선일보

협찬 **aquapick**
아쿠아픽

협찬 **동성제약**



카카오모빌리티,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카카오모빌리티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이동 및 안내시설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카카오모빌리티 판교 사옥에서 (사진 왼쪽부터)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대표이사과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CJ프레시웨이-대동, 농산물 공급 안정화 나선다

CJ프레시웨이와 대동이 농산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농업 솔루션 개발과 농가 기술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지난 15일 김중선 CJ프레시웨이 상품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나영중 대동 시플랫 품사사업부팀장이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현대모비스, 수박 1만통 구매... 협력사 200곳 전달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전국에서 수박 1만통을 구매했다. 16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에 자동차용 A/S부품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협력사에 계절과일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억여 원을 들여 수박을 구매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A/S부품 우수 협력사 200곳에 수박과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



아시아나, 폐유니폼 업사이클링... 가방·파우치 출시

아시아나항공이 16일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유니폼을 가방과 파우치로 재탄생시켜 출시한다. 아시아나항공과 119REO의 협업을 통해 출시되는 이번 가방과 파우치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통해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원 선순환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획상품이다. /아시아나항공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KB증권, 제주 함덕해수욕장서 플로깅 캠페인

KB증권은 지난 13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플로깅 캠페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 - 제주'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B증권 임직원과 제주 지역 환경동아리 대학생들 등 70여명이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했다.

/KB증권

LG엔솔, 배터리 분야 산학협력 앞장

**제2회 산학협력 컨퍼런스 개최
연구성과 공유... 우수인재 양성**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학계 인재들이 한 데 모여 우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산학협력의 장'을 열었다.

16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과 석·박사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LG에너지솔루션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내 배터리 업계 만형인 LG에너지솔루션과 국내 관련 학계 인재들이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배터리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15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제2회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제2회 LG에너지솔루션 산학협력 컨퍼런스'는 ▲대학 연구진들의 배터리 산학협력 연구 우수 성과 발표 ▲대학원생 연구성과 포스터 발표 ▲LG에너지솔루션 채용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LG에너지솔루션 CTO(최고기술책임자) 김제영 전무는 "이번 컨퍼

런스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진행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림대의료원, 김용선 신임 의료원장 취임

**바이러스 분야 권위자
프리온 관련 질환 등 연구**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1일자로 김용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석좌교수(사진)가 제19대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다.

김용선 신임 의료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김용선 신임 의료원장은 한림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료원에서 여러 주요 역할을 맡으며 발전을 이끌어 왔다.

김 의료원장은 한림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교수,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소장, 한림대 의과대학장, 한림대 의부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화 및 연구강화위원장,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위원장, 한림대의

과대학 석좌교수,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연구고문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김 의료원장은 바이러스 분야의 권위자로, 핵산 없이 단백질만으로 이뤄진 전염병체인 프리온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로는 '프리온 질환에서 퇴행성 신경변화에 대한 병리기전', '프리온 질환의 조기 진단 기법 및 치료제 개발', '노화에 따른 퇴행성 신경변화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역할 구명' 등이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트로트 황태자' 가수 현철 별세

지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트로트 가수 현철(강상수·사진)이 15일 저녁 서울 광진구 병원에서 지병별세했다. 향년 82세.

1980~90년대 트로트 황태자로 큰 인기를 누린 고인은 '봉선화 연정'를 비롯 '싫다 싫어' 등 입에 착달라 붙는 가사말로 대중들의 애환을 달랜 가수다.

1969년에 데뷔해 약 15년 무명의 설움을 견뎌 1982년 '앞으나 서



나당신 생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후 1984년 '청춘을 돌려다오', 1988년 '봉선화 연정', 1990년 '싫다 싫어' 등 잇따라 히트곡을 내며 1989~1990년 2년 연속 KBS '가요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됐다.

고인은 1990년대와 2000년대가

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설운도,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트로트 가수 4대 천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0년 신곡 '아이 러브 유', '당신 없인' 등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건강 악화로 무대에 서지 못했고 2020년 KBS 2TV '볼후의 명곡'에서 깜짝 출연해 그의 건재함을 알렸고 같은해 KBS 가요무대에서 '봉선화 연정'을 부른 것이 고인의 마지막 무대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OCI,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16년 연속 무분규 달성

OCI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 달성 성과를 인정 받았다.

OCI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군산공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OCI 군산공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지난 2008년 노동조

합 설립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한 점을 인정 받았다.

김유신 OCI 사장은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그동안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노사 양측 모두의 공로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아이온' 아트워크 선배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MZ세대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아트워크를 진행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전용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글로벌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트워크는 '한국(Hankook) X 디지털 크리에이터(Digital Creator)' 시즌4의 성과물로 정언호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됐다. 정언호 작가는 자연을 배경으로 여행, 서핑, 캠핑, 자동차, 반려동물 등 본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제를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일러스트로 묘사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일러스트 4종으로 세계 최초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인 '아이온'의 기술력을 일상에서 만나는 친근한 느낌으로 그려냈다. /차현정 기자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 '올해의 디자인' 수상

코웨이 비렉스(BEREX) 페블체어(사진)가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제12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심사에서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차별화된 심미성과 사용성을 높여 평가 받아 '올해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기업협회-SK실더스 벤처기업 보안 역량강화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들의 정보 보안 역량 강화지원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에서 SK실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 환경 도입으로 인해 외부망과 접점이 늘어나며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벤처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부음

▲김순덕님 별세, 이원태(전 수협은행장), 이진상(쑤진안 부시장)씨 모친상 =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요셉관) 특실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53-650-4444

ONOFF

2024.7월

FF-247 IV | LADY IRON(LP423)



ONOFF
LADY IRON
(LP423)



비가 와도 식지 않는 열정을 위해
우산 증정 이벤트

(색상 랜덤 증정)



*행사 기간: 7월 7일 ~ 8월 11일, FF-247 IV | LADY(LP423) 아이언 품목 구매 고객 한정(사은품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

*온오프 홈페이지(onooffgolf.co.kr)정품 등록 필수(회원가입시 등록된 주소로 2주일 이내 상품 발송 -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JULY PROMOTION

ONOFF GOLF

북청 물장수



김준형의
청명광나

필자가 젊은 시절,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책을 한권 빌려 주었다. 책의 내용은 이랬다. 옛날 무위도식하며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자신도 밥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특별한 재주가 없는 청년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청년이 사는 동네는 물이 귀했다. 동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러 와야 했다. 청년은 물을 길러 와서 팔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돈을 버는 재미가 생겼다. 청년은 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더니, 몸에 탈이 났다. '나도 결국은 늙을 텐데, 계속 물장수를 할 수는 없겠구나.' 고심하던 청년은 파이프로 강과 동네를 연결했다. 청년은 강에서 흘러온 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더 많이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

해서는 청년처럼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돈이 저절로 굴러오게 해야 한다.' 어찌 보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며칠 후, 지인을 다시 만났다. 책의 내용이 좋았다고 하자, "선생님에게 꼭 맞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카탈로그를 꺼내 들었다.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단단계 판매를 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에도 물장수가 있었다. 특히 서울의 물장수들 중에는 함경도 북청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을 '북청 물장수'라 불렀다. 북청 물장수들은 새벽부터 서울의 구석구석에 식수를 공급했고, '성실'의 대명사로 통했다.

얼마 전 어느 목사가 3천억대의 불법 단계를 혐의로 고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 단단계 사기와 폰지 사기는 잇을 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이제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만 한데, 왜 자주 반복되는 것일까? 해답은 목사의 말에서 추정할 수 있다. 목사는 '나는 놀아도 회사가 존재하는 한은 돈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즉 평생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더구나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기업들은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세상.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시던 어르신들은 여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 경험 많은 분들인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해보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모른다. 그러나 이성적인 의심과 불안한 감정이 부딪히면, 대부분 불안이 이성을 물리치게 된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단단계 사기와 폰지 사기는 약자의 공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행운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북청 물장수의 성실함'이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세상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그리고 팍팍해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북청 물장수의 성실함만으로는 살아가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기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은 나만 느끼는 것일까?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불로소득이 발생하지만 금세, 48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60년생 수업을 하러 물가에 왔으니 해업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돌 중 하나, 72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 84년생 속 시원함 앓던 이가 쑥 빠지는 기분.
- 소** 37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49년생 가뭄에 대비 오동이 일이 잘 해결, 61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73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경험으로 삼아라, 85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 호랑이** 38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0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2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74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도 날아가니 조심, 86년생 적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주변도 경계해야 한다.
- 토끼** 39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51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3년생 운이 막히니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75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87년생 낯익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 말조심.
- 말** 40년생 위기를 겪으며 중심 부분을 깨닫는다, 52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64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76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시작이 우선으로 필요, 88년생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 뱀** 41년생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해보자, 53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만 하루, 65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우기지 말아야 현명, 77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으므로 지금이 기회다, 89년생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저축 시작을.
- 말** 42년생 전달래와 산책쪽은 같은 꽃이기는 하지만, 54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66년생 바쁘게 걸어가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78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90년생 직장에 대한 불평은 누워서 침 뱉기.
- 양** 43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 5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7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9년생 오늘 불길하니 매입은 다음에, 91년생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매 했으니 말조심을.
- 원숭이** 44년생 동료와 항상 말조심, 56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68년생 획기적인 발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80년생 운을 바꾸려면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92년생 약속은 신의이니 작은 약속도 신심으로 이행.
- 닭** 45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57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69년생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81년생 급하지만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93년생 진실이든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할 것.
- 개** 46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58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70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82년생 괴로움의 상체는 나야도 흥터는 남는다, 94년생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 돼지** 4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9년생 친구와 식사를, 71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3년생 썩은 나무에 무엇으로 조각할 수가 있겠는가, 95년생 감탄고토함중풍어 달던 삼키고 쓰면 뱀는 것이 인생사이니.

치솟는 비용에 발목 잡힌 해상풍력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해상풍력이 작은 면적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너무도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그 성장이 지지부진한 현실이 안타깝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전체 에너지믹스의 약 23%를 차지하며 주요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 관련 업계들은 풍력 발전량을 늘리는 데 집중 중이나, 여전히 해상풍력 사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설비와 건설 비용이 치솟으면서 여기저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설

치할 선박의 대수가 확정돼, 설치비와 해상풍력 케이블 연결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원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해상풍력발전 단지 설립 또한 비용압박이 크다. 스웨덴 전력회사 바덴폴에 따르면 터빈과 같은 부품 및 장비와 인건비 등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비용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였던 전남 영광 낙원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6월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전남 영광 낙원 프로젝트는 사업비 2조3000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였으나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손을 뗐다. 사업 주체였던 서부발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490억원 규모의 출자를 철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금융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 기관이 나서서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차액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 간의 경쟁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이 우리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hyeon@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호모사피엔스

필자의 사찰 율광사 신도분의 손자에 관한 얘기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 손자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잘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러닝셔츠를 물에 적셨다가 짜서 입고는 침대에 누웠다. 처음엔 등도 시원해 좋아하며 누웠으나 조금 지나자마자 침대가 눅눅해지고 누웠던 자리도 열로 더 뜨끈해지는지라 밖으로 나와서는 엄마에게 SOS를 청했다. 처음엔 좋아 보였어도 행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마냥 좋은 일만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속성이다.

음식을 먹지만 일정 분량을 넘기면 과식으로 힘겨워지고 잘 썩지 않으면 체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인류의 시조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가 덩치 큰 코끼리 같은 동물보다 힘도 약하며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않은데도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협동 정신에 있다고 보는 인류학자도 있다. 무릇 문명을 이루고 모든 중에 우선하는 인류를 이룬 이후에도 나라가 됐던 개개인의 삶이 됐던 살아나가자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서두에 신도분의 귀여운 손자 얘기는 한바탕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적 경영의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글썩, 답은 화합과 협동이 아닐까 싶다. 화합은 자타가 함께 좋다는 의미이다. 정치가 협치 된다면 국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각 가정과 개인 사이에서도 자리아타라고 생각된다면 좋은 결과 최소한 결점이 제일 적은 선택이라 판단된다. 이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얻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1		9	7	4
4		2			7
	7				2 6
3 8					1
		5			8 7
	3		7	4	9
		7		2	

		4 8	3	5 7 6	
		6 4 9			
					4
					8
6			5		9
	7				
7					
			5 7 6		
3 6 1	9		4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9	1 2 8 8	2 9 6
2 6 9	7 5 2 1 8 8	
2 8 8	1 6 9 9 7 2	
6 1 7 9	2 2 9 8 8	
8 2 8	6 9 1 7 2 9	
9 2 9	8 7 8 6 2 1	
9 8 2	9 1 9 2 6 4	
9 7 2	2 8 6 8 8 1 9	
1 9 6	8 2 4 7 8 9 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8호		

노동시장 둔화 등에 경기침체 지속 “中企 증가 정체·소상공인 경기악화”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7월호’ 최근 5인이상 기업 수 감소세 높아
건설업 -2.8%·제조업 -2.1% 기록

최근 서울시내 5인 이상 기업 수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비가 위축돼 서울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중소기업 수 증가세는 둔화됐고, 소상공인 경기 전망도 악화됐다. 지난 5월 서울 중소기업 수 증가율(0.0%·이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전월(0.1%)보다 하락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은 -2.8%, 제조업은 -2.1%, 서비스업은 0.5%였다.

5인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 수가 감소세를 지속했다. 올 3~5월 5~29인 기업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8%, -3.9%, -4.1%였다. 같은 기간 30~99인 기업은 -0.6%, -0.6%, -0.9%로, 100~299인 기업은 -0.7%, -1.2%, -1.4%로 조사됐다.

7월 서울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BSI(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소상공인 BSI 전망은 6월 65.2에서 7월 56.1로, 전통시장의 경우 62.6에서 44.4로 주저앉았다.

서울의 소비경기는 대부분 업종과 권역에서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4.4%였다.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는 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차가운 분위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침체를 나타내는 이미지.

난 4월 -1.6%에서 5월 -3.1%로 떨어졌다. 해당 기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0.7%에서 -3.3%로, 숙박·음식점업은 -3.2%에서 -2.9%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든 권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소비경기지수가 하락했다. 올 5월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0.8%, 동남권은 -2.5%, 동북권은 -2.8%, 서남권은 -5.0%, 서북권은 -3.3%로 조사됐다.

서울의 노동시장은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의 취업자 수 증감은 2만9000명으로 전월 10만5000명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임금 근로자 수의 증감은 7만3000명으로 전달 15만4000명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상용직 수 증감은 4월 10만명에서 5월 2만2000명으로 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 수 증감은 5만4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5.6% 쪼그라들었다.

민간신용부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로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이어졌다. 올 4월 서울의 가계대출은 전월(358조3000억원)보다 증가한 36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45%에서 4월 0.48%로 소폭 상승했다. 동기간 대출 고위험군(DSR 70% 이상) 비중은 9.33%에서 9.38%로 늘었다.

지난 4월 서울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350조원)보다 증가한 352조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월 0.84%에서 4월 0.99%로 상승했다. 생활밀접업종 대출은 4월 2.09%에서 5월 2.99%로 뛰었다.

지난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3.1%)은 전월(5.0%)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 5월 수출(0.4%)은 전월(8.9%)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수입(-3.0%)은 전월의 증가(3.1%)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3.1%)은 전월(5.0%)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 5월 수출(0.4%)은 전월(8.9%)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수입(-3.0%)은 전월의 증가(3.1%)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3.1%)은 전월(5.0%)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 5월 수출(0.4%)은 전월(8.9%)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수입(-3.0%)은 전월의 증가(3.1%)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3.1%)은 전월(5.0%)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 5월 수출(0.4%)은 전월(8.9%)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수입(-3.0%)은 전월의 증가(3.1%)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가정 모집

서울시-노동부 내달 6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국인 돌봄종사자 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본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과 이용 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가사서비스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올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월·금요일 중 서비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로,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 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과 비교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용 희망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강남역 등 10개역 역명병기 입찰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해 입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 2호선 신림·강남·성수역, 5호선 여의나루·답십리역, 7호선 상봉역과 환승역인 사당역(2·4호선), 삼각지역(4·6호선), 노원역(4·7호선) 총 10개다. 역명병기는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역명은 풀사인·출입구·승강장·안전문 역명판과 전동차 단일 노선도를 포함 8곳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판명이 나와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안내표지 표기 범위를 조정했다.

우선 공사는 심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적합(O) 또는 부적합(X)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 편의성, 기관 요건 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대상 기관 안내 표기 범위는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안내 표기와 광고 매체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 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서울시내 기준 1km 이내(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인천광역시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 1,200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인천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역사 등 체험 기회를 통해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 청소년과의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재외동포 청소년 1,200명이 7월 1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각 6박7일 동안 인천-경주-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박3일 인천 체류 일정에는 관내 청소년 600명도 함께 참여한다.

/인천=김민성 기자 kmmmm112@

서울시교육청, 작년 세입 ‘13조’

전년대비 10% 가량 감소
경기침체 등에 1.4조 줄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13조3145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량 줄어 들었다. 경기침체 여파가 교육청 이전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를 공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총 13조3145억원, 세출 총 11조 7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조 4237억원(9.7%), 세출은 1조 445억원(8.2%)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경기 침체 여파로 국제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이전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총 결산액 13조3145억원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조1067억원(8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자체수입의 경우 2501억원(1.9%)에 불과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세출의 경우 사업성질별 기준, 총 11조7665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6조 6354억원,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각종 교육사업비 2조 8064억원(23.8%) ▲시설사업비 1조 88억원(8.6%) ▲학교운영비 1조17억원(8.5%) ▲재무활동 2320억원(2.0%) ▲예비비 및 기타 453억원(0.4%) ▲기관운영비 369억원(0.3%) 순이다.

‘2023알기 쉬운 결산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간결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7월 17일 (수)
음력 : 6월 12일

수도권 날씨
24~26°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23/26, 동두천 23/25, 가평 23/26, 파주 23/26, 서울 24/26, 양평 23/27, 인천 24/26, 수원 25/27, 용인 25/27, 평택 24/29, 백령도 22/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 바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거즈 불인 트럼프 등장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첫날부터 후끈 /사진 뉴스스
▲ “트럼프 재집권시 유럽 경제에 큰 타격... GDP↓·물가↑”

▲ 머스크, ‘피격’ 트럼프에 올인... “매달 623억원 기부한다”
▲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7차 방출 안료... 해수욕장 잇단 개장



▲ 中 작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200만 명 많아... 2년째 인구 순감
▲ 바이든 “트럼프보다 겨우 3살 많다”... 완주 의지 거듭 피력 /사진 뉴스스



서점가
이색 굿즈로
독자 발길 잡는다
L1



Life

식품업계
쌀 품질·풍미 강조
'프리미엄' 선배
L2



metro · metro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시| 7월 17일(수)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밸류업 전략으로 투자 '레벨업'... 촘촘한 자산안전망 만들기

개미들, 국내장 부진에 미국장으로 저성장 속 새로운 재테크 전략 제시 부동산·미국주식 등 안전투자 조언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시장 전망도

개미들의 국내증시 엑소더스(대규모 이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동력으로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며 지지부진한 국내 시장을 떠나 '주식 이민'을 택한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 3935억원 팔아 치웠다.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이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 잔액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의 이탈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지쳐버린 영향이 컸다. 지난 2023년 한해 코스피 지수는 33.70% 추락하며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5% 오르는 사이 코스피 지수는 7.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한국 증시의 오랜 지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증시를 부양하고, 등 돌린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합계출산율이 0.72에 그치는 초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겹치며 한국의 미래가 나아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메트로신문 & 메트로경제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를 열고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안전망이 되어줄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이 맡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시장 전망과 가치투자의 시대에 주목할 투자법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00	기조강연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15:00~15:40	강연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미국주식 투자전략

제시한다.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부동산 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을 주제로 100세 시대 안전망이 되어 줄 부동산을 짚어준다. 마지막으로 김세환 KB증권 리서치

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은 '미국주식 투자전략'을 주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은 '2024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두고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외국인 순매수세는 최대 규모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3분기에 밸류업 관련 지수를 발표, 4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연기금 자금을 집행할 예정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내다본다. 세법과 상법 어느 방향이든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상법 개정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배당성향의 극적인 전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주권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주주권 제한과 균형이 존재하는 영미 주식시장과는 달리 한국은 상속과정에 지분이 분산됐지만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언이다.

- 현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 전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한국의 적립기금은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인출)적립+수익'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김 고문은 "사적연금은 스스로 인출을 실행해야 한다"며 "인출기에 ▲구매력 리스크 ▲장수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등을 겪게 된다"고 언급한다. 김 고문은 이번 포럼에서 3가지 리스크를 알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한다. 김 고문은 은퇴 후 초기 10년 수익률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10년 수익률이 은퇴 후 30년 동안의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5세~74세를 '고령 전기'로, 75세 이상을 '고령 후기'로 볼 때, 전기에는 유동자금이 필요하고 후기에는 장수 대비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김 고문은 각국의 '인출 방식'을 예로 들며 '인출 상품군'의 배분을 통한 '인출 전략'에 대해서도 제언할 예정이다.

- 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전 미래에셋투자자금융센터(구 은퇴연구소) 대표
-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부동산 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한 뒤 주택시장 매매가격, 거래량 등 현황을 진단해 향후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동남권역의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 주요 입주예정 단지 등을 분석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언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해 구간별 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 박사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거래량 레벨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지역에도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은 '미국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최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산업 전반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주식을 팔고 미국증시로 떠나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 3935억원 팔아 치웠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 잔액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을 이끄는 국가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김 팀장은 주주수익률이 높고 장기 이익 성장성이 반영된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AI 산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강인, 김민재 친정 나폴리행 가능성 거론 "트레이드 고려" /사진 뉴시스
▲'학폭 논란' 이재영 은퇴 암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오타니 "2028년 LA 올림픽, 당연히 출전하고 싶어"... MLB 마음 바꿀까
▲두 번째 올림픽 나서는 수영 황선우 "경험 쌓여... 후회 없어"



▲울버햄튼 황희찬, 프리시즌 경기 도중 인종차별 당해 /사진 뉴시스
▲이승우·린가드, 토트넘과 붙는다... 팀 K리그 '팬 일레븐' 명단 발표